



MBC

+ 장익선 · MBC 제작기술국 영상기술부

작가 정연두를 만나다

매체는 내가 표현을 하기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이기에 신기술이나 복잡한 작업들도 제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가의 생각과 가치가 아닐까요?



정연두 작가의 작업실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눈가의 웃음 주름과 턱의 수염, 무엇보다도 편안한 인상이 그를 기억케 한다.

그의 화려한 경력은 인터넷의 연두색 검색창이 아주 잘 증명해 주는 듯 하다.

2009년이 마무리 되어져 가는 지금 정연두 작가가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마흔이라는 나이에도 형식이나 틀에 갇히지 않은 자유로움과 꿈을 실현시켜나가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는 사진가, 화가, 조각가, 미디어 아티스트, 영화감독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 운다. 그의 작품에는 형식이란 없다.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법칙이나 원리도 없다. 그것이 바로 그의 작품이고 그의 작품 속 매력이다.

필자는 그의 작품 중 '2005 Wonderland'와 '2007 Locations'를 좋아한다. 2005 Wonderland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내가 사진을 전공했다라면 그러한 사진 작업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그의 생각을 표현하는 매체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모르기에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매체는 내가 표현을 하기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이기에 신기술이나 복잡한 작업들도 제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가의 생각과 가치가 아닐까요?"

[낮잠]



[가수가 되고 싶어요]



[신데렐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요]



2005 Wonderland

이 작품들은 아이들의 꿈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이것을 사진작업으로 재창조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다. 특히, 2005 Wonderland는 사람들의 꿈을 사진으로나마 실현시켜주고자 하는 '2001 Bewitched' 작업의 연장선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아이들의 시각과 상상력을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작가가 어떻게 재창조했는가는 아주 재미있는 작업이자 과정이다.

정연두 작가는 어린 아이들의 드로잉의 무한한 상상력을 재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데, 4개월 동안 서울의 3개 유치원의 미술 수업을 관찰하고 5살에서 7살 사이의 어린이들이 그린 1200개의 드로잉을 모은다.

그 중 17개를 선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시나리오를 연기할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전단지들을 고등학교에 배포하여 고등학생을 모집하고 촬영했다.

작가는 드로잉의 디테일들을 섬세하게 재현하기 위해 패션 디자이너에게 사진을 위한 옷의 제작을 부탁하여 의상과 소품, 세트도 드로잉에 가깝게 제작하고 촬영했다.

지금 성인이 된 그대들의 어릴 적 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007 Locations

Location은 영화,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야외 촬영지를 뜻한다. 우리는 카메라라는 매체를 통하여 항상 Location의 비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결국 Location은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다.

작가는 우리에게 사진 매체를 통해 현실과 가상을 대비시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언밸런스한 조명과 고의적인 세트 노출, 가짜 티가 물씬 나는 자연물. 하지만, 얼핏 보면 그런 것들조차도 웬지 그 사진에서는 무척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상한 현상들.



[Location #3]



[Location #4]



[Location #7]



[Location #11]

우리가 사는 삶도 Location이 아닐까?

정연두 작가의 작품은 언제나 필자에게 상상력과 삶에 대한 반성을 일깨워준다. 우연히 알게 된 작가의 작품 속에서 내가 잊고 살아가던 삶의 방법을 되찾았을 때, 떠오르는 가슴 설렘을 함께 느꼈으면 한다.